

명장의 숨씨로 그린 우리 시대의 거대한 벽화

《한강(전10권)》 완간한 조정래씨



이 책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분단' 과 '경제발전' 이라는 쌍두마차의 수레바퀴 밑에서 힘겨운 시대를 견뎌왔던 동시대인들의 자화상이다. 조정래씨는 민초들의 땀과 눈물, 희망과 절망의 간단없는 변주를 통해 격랑의 30년사를 오롯이 되살려낸다. 조씨는 “우리가 현실에서 망각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과제인 통일문제, 분단의 아픔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속박해왔는가를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한다.

수난의 시대를 묵묵히 지탱한 기둥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이름 없는 민초들의 아픔과 눈물을 숨김없이 담아낸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월북자의 아들이란 '연좌제' 의 사슬에 묶여 분단의 아픔을 현실의 좌절로 감내하며 살아가는 유일민·유일표 형제,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주먹계로 들어서는 서동철, 신분상승의 욕망을 안고 법조계로 뛰어드는 이규백과 김선오, 철저하게 권력의 논리에 맞춰 능수능란하게 입지를 바꾸는 강기수마저 굴곡진 시대를 건너온 미워할 수 없는 우리의 분신으로 읽힌다.

그는 등단 초기부터 분단문제를 화두처럼 꺼내고 살아왔다. 이 책도 “우리가 현실에서 망각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과제인 통일문제, 분단의 아픔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속박해왔는가를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한다.

대하소설을 쓰던 20년 동안 '글감옥' 에 갇혀 지내

《한강》은 수많은 군상들의 눈물과 웃음, 배반과 음모가 뒤엉킨 인간과 사회의 거대한 드라마다. 그 유장한 흐름을 위해 그가 한 장 한 장 채워간 원고지는 1만 5천장에 이른다. 여기에 전작 《태백산맥》 《아리랑》의 원고를 보태면 높이가 5m 50cm나 된다. 어떻게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뎠을까 자못 궁금해지는데, 그는 “대하소설을 쓰는 일은 끝없는 중노동이지만,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말로 짧게 대답할 뿐이다.

그는 일단 창작에 몰입하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동안 감내한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글감옥' 에서 보낸 20년 세월로 표현한다. 하지만 세상과 결별한 채 글감옥에 갇혀 보낸 시절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긴 외로움의 산고를 치르며 하나하나 자식 같은 작품을 낳을 때마다 독자들이 큰 사랑으로 보듬어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을 밑거름 삼아 이 책은 출간한 지 넉달도 안돼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신화' 를 창조했다.

을사보호조약체결부터 해방기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담은 《아리랑(전12권)》, 한국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자화상을 소설로 형상화한 《태백산맥(전10권)》의 작가 조정래씨(60)가 최근 분단 이후 한국현대사의 유장한 격랑을 다룬 소설 《한강(전10권)》(이상 해냄)을 완간했다. 이로써 조씨는 1905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한국근현대사 3부작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태백산맥》을 집필하기 시작한 게 마흔이고, 어느새 갑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스란히 소설쓰기에 바친 셈이다. 더욱이 대하소설의 황금기가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통합 1만페이지가 넘는 정통 역사드라마를 만들어냈으니 결눈질 한번 하지 않고 오로지 소설쓰기에만 매진해온 그의 투혼 앞에 그저 숙연해질 따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격랑의 30년사 엮어

이 책이 아우르는 현대사는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진다. 그는 '분단' 과 '경제발전' 이라는 두개의 키워드로 한국전쟁 이후 독재의 군홧발과 애타계 민주화를 갈구하는 민초들의 돌팔매가 맞선 격랑의 30년사를 엮어냈다.

“우리의 현대사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분단의 강화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해낸 시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 강화와 경제 발전은 충들을 피할 수 없는 절대모순이죠.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 오늘에 이른 것이구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몸부림치며

견뎌낸 세월이 고되다 보니 병도 많고 탈도 많았다. 《태백산맥》을 쓸 때부터 찰거머리처럼 따라붙은 위궤양이 다섯번이나 재발해 《아리랑》을 쓰던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담배를 끊는 등 안간힘을 쓰며 겨우 위궤양을 몰아냈을 땐, 종창과 오른팔 마비가 찾아왔다. 다행히 이 책을 쓸 때는 별탈 없이 끝내내 싶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 이번에는 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장장 7개월 동안 탈장을 앓으며 이 책을 끝냈다. 결국 지난 달 마지막 원고를 넘기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을 받았다.

“탈고하고 나니 힘겨운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허전함이 교차하더군요. 탈장의 고통까지 이겨낸 암담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겹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들은 소설을 만들어가는 정신적 괴로움에 비하면 되려 가벼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인간세상 비추고 밝히는 거울이자 등불

대하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담아내는 만큼 정확한 고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문에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민초들의 삶을 날것으로 되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치밀한 자료조사로 이어진다. 《태백산맥》을 쓸 때는 지리산을 열두번도 넘게 오르고, 어딘가에 흩어져 있을 빨치산의 후예들을 찾아 나섰다. 소설의 무대가 세계로 확장된 《아리랑》을 쓸 때는 지구를 세바퀴 반이나 도는 긴 취재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 독일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누비고 다녔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으면서도 삶의 미세한 결을 치밀한 묘사로 생생하게 형상화하는 그의 소설적 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는 이런 노력이 역사의 뒤란에 묻혀 있는 진실을 발굴해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대하소설이 안 읽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지식 대중들의 갈망은 결코 식지 않았습시다. 지나친 의미 부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은 현미경적 구체성과 망원경적 총체성으로 인간세상을 비추고 밝히는 거울이자 등불이 아닐까요. 대하소설은 바로 꼭질 많은 우리 현대사의 주름을 한겹씩 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1부 ‘격랑의 시대’가 서울의 일류대학과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상경하는 유일민, 유일표 형제, 피나리붓짐에 실날같은 희망을 싣고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민중들의 삶을 4·19혁명과 5·16쿠데타 위에 겹쳐 그렸다면, 2부 ‘유형

의 시대’는 경제기적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하루 16시간의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가발공장 여공들, 물신 독일에서 한숨 쉬던 탄가루를 가슴 속에 쥔 광부들, 월 40달러에 목숨을 맡바꾼 월남파병군들, 그 잊혀진 ‘산업전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는 해원의 장이다. 3부 ‘불신시대’는 정의와 진실이 군부의 이름 아래 무참히 짓밟힌 1970년대와 광주민주화운동 등 파란만장한 변혁의 세월을 그렸다.

이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수미쌍관’ 구도로 배치한 점이다. 그는 “새벽 어스름이 스러져 가고 있는 한겨울 들판을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로 서두를 열고, “기차는 한강 철교를 지나고 있었다”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서두의 상경 모티프가 등장인물의 개인적인 희망찾기에 머무른다면, 말미에서 유일표, 이상재, 원병균 일행이 광주로 향하는 것은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살아남은 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역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래는 소설 속에 1990년대 초반까지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인 1990년대의 역사가 너무 가까운 현실이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1980년 5·18에서 끝을 맺었다. 아무리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것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호명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는 자연스레 후배작가들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등단작 <누명>부터 《불놀이》까지가 저의 전반기 문학과, 대하소설 서른두권이 중반기 문학입니다. 이제 여유롭게 후반기 문학을 준비해야죠. 그동안 민족사의 질곡을 파헤치는 데 매진해왔으니 이젠 시야를 넓혀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공해, 환경, 인간복제 등으로 주제를 넓히고 싶습니다. 손자세대를 위한 동화도 두권 정도 쓰고, 문명비평서도 꼭 한권 쓰고 싶습니다.” —박욱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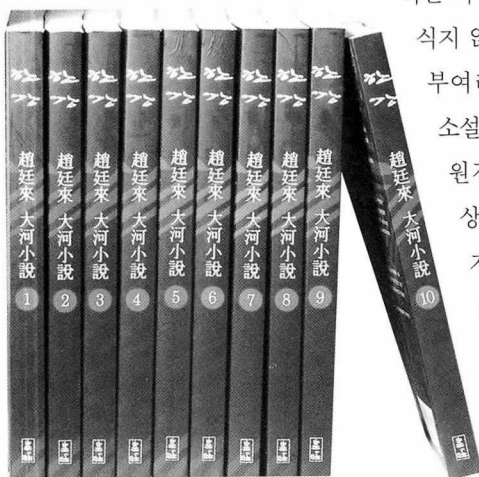
느긋하게 쉬면서 황혼기 문학 구상하고 싶어

오랜 투병 끝이라서 그런지 그의 얼굴엔 아직도 병색이 완연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수술자리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단다.

필생의 대작을 마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내가 글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 묵묵히 ‘옥바라지’를 한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이젠 좋은 곳을 찾아 느긋하게 구경하면서 아내와 함께 주말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도 끊어오르는 창작의 욕구 앞에서는 무색해지는지 집필계획을 물었더니 앞으로 10년 동안 10권의 책을 펴낼 생각이란다. 그 열정에 놀라 그저 입가에 웃음만 걸리는데, 그런 기자에게 던지는 그의 일침. “그래도 매일 원고지 35장을 메우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 말 못하고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그는 《한강》을 끝내고 나서 아들한테 컴퓨터를 선물받았다. 가끔씩 출판사에서 만들어준 자신의 홈페이지에 들르곤 하지만 아직 그에게 컴퓨터는 생경한 존재다. 잡문이나 일기 등은 이제 컴퓨터로 써볼 생각이다. 하지만 소설만큼은 죽는 날까지 펜으로 쓰겠다고 말한다. 영혼을 담아내는 예술을 경박스럽게 자판을 두드리며 타전하듯 쓰는 것은 문학의 신성성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란다.



해냄/A5신/330면 내외/각 8000원